

팬데믹 대응과 CSO의 역할

SNU 국가전략위원회 제1차 국가정책포럼 @ 블루스퀘어

2020/05/20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감염병 예방/관리의 특징

- 병원체 ↔ 인간 ↔ 환경의 상호작용
→ 불확실성, 완벽한 통제 불가능성: 위험 소통
-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취약성
→ 불평등 (자유와 자격): 사회정의와 형평성 관점
- 타인에 대한 감염 + 군집 면역에 의한 보호 효과
→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 개인과 사회의 편익 균형

WHO: 위험 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 RCCE: risk communic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WHO, 2020/03)
 -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effective interventions in a public health response to any event is to proactively communicate what is known, what is unknown, and what is being done to get more information, with the objectives of saving lives and minimizing adverse consequences.
 - RCCE helps prevent infodemics, builds trust in the response, and increases the probability that health advice will be followed. It minimizes and manages rumours and misunderstandings that undermine responses and may lead to further disease spread.
 - Regular and proactive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with the public and at-risk populations can help alleviate confusion and avoid misunderstandings.
 - People have the right to be informed about and understand the health risks that they and their loved ones face.
 - The perception of risk among affected populations often differs from that of experts and authorities. Effective RCCE can help bridge that gap by determining what people know, how they feel, and what they do in response to disease outbreaks, as well as what they ought to know and do to bring the outbreak under control. Effective RCCE helps transform and deliver complex scientific knowledge so that it is understood by, accessible to, and trusted by populations and communities.
 - Effective RCCE uses community engagement strategies to involve communities in the response and develops acceptable and beneficial interventions to stop further amplification of the outbreak and to ensure that individuals and groups take protective measures.
 - RCCE is essential for surveillance, case reporting, contact tracing, caring for the sick, delivering clinical care, and gathering local support for any logistic and operational needs for the response.
 - Effective RCCE can minimize social disruption. Therefore, in addition to protecting health, it can protect jobs, tourism, and the economy.

위험 소통에서 한발 더 나아가...

- 판데믹, 공중보건 위기 대응은 사회적 중재
 - 복잡한 사회적 중재(complex social intervention)의 특징 (Pawson, 2005)
 - 복잡한 사회적 중재는 이론들이다.
 - 그러한 중재는 능동적이다.
 - 중재 이론은 긴 여정을 경과한다.
 - 그러한 중재는 선형적이지 않다.
 - 중재 효과는 맥락적이다.
 - 누수되며 모방되기 쉽다.
 - 개방 체계를 가진다.
- 정부의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거버넌스 필요

거버넌스 접근의 의의


- 효과성 : 지역 사회에 대한 유연한 현장 지식, ‘행정적’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장기적) 결과에 대한 당사자 목소리
- 정부/기업의 책무성 강화: 시민적 감시 (→ 신뢰)
- 위험 부담과 편익의 불평등 완화
- 민주주의 강화: 민주주의는 완결된 목표가 아니라 ‘과정’으로 존재 → 공공의 보건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위기 당국을 이해하며 성공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자산 (Spana, 2007)

위험 거버넌스의 구축

- 정부와 전문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위험 인식에 중요한 영향
-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과정에 전문가-정부-시민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구조
- 노동조합을 통한 작업장 민주주의 강화
- ‘새로운 위험’은 일사불란한 상명하달의 위험 ‘관리’가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와 상호 신뢰를 통해서만 통제 가능. 노동조합은 물론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 등 주요 당사자들이 공중보건 위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치 구조 마련
-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Non-State, not-for-profit, voluntary entities formed by people in the social sphere that are separate from the State and the market. CSOs represent a wide range of interests and ties. They can include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as well as NGOs (UNGP).

Project Syndicate LOG IN

LATEST COLUMNISTS SECTIONS ▾




English f t in @ 2 🔖

How South Korea Stopped COVID 19 Early

Apr 27, 2020 | MYOUNG-HEE KIM

Government testing and tracing alone did not hal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in South Korea. The country's civil-society organizations also played a critical role by monitoring the situation closely, helping to hold the authorities accountable, and reaching vulnerable social groups.

 EOUL – South Korea experienced one of the world's largest initial outbreaks of COVID-19 outside China. But,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many European

Project Syndicate Apr 27, 2020
(<https://is.gd/nYBMw3>)

Trade unions, NGOs, and the public were also instrumental in pushing the government to protect vulnerable citizens, respect their basic human rights, and address the deeply rooted inequalities highlighted by social-distancing measures.

NGOs cooperated closely with local service providers to identify gaps in care. NGOs monitored assisted-living facilities, homeless shelters, and vulnerable individuals at home to ensure that these populations were receiving proper attention. And community volunteers stepped in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where local governments lacked the capacity to do so.

A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creasingly adopt wartime-like measures to fight the pandemic, civil-society groups must prevent policymakers from responding in ways that further exacerbate inequalities or marginalize the most vulnerable groups. Such efforts were crucial to South Korea's success, and they can help other countries to beat the virus, too.

- 활동소식
- 소식지-더불어 사는 삶
- 뉴스레터
- 보도자료
- SOMI faceboo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16개 언어]

조회수 1053 추천수 0 | 2020.01.29 10:02:28

<http://somi.or.kr/va/24579>

이주민과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다언어버전: 16개 언어]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동포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질병관리본부 제작),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네덜어, 방글라데시어, 일본어, 따갈로그어, 미얀마어, 스리랑카어(이주민통번역센터링크 번역)

नेपाल

질병관리본부 KCDC

이주민과함께 링크 해외감염병 NOW

नया प्रजातिको कोरोना भाईरसको संक्रमणबाट बच्ने तरिका

संक्राणु रोगबाट बच्ने तरिका

हत्केला, नङ् भित्र राम्ररी धुने! | खोकदा हातको बहुलाले छोपे

खोकी आदि श्वास प्रश्वासमा समस्या भएको व्यक्ति मेडिकल वा अस्पताल जादा मास्कको प्रयोग अवश्य गर्ने | मेडिकल वा अस्पताल जादा चिकित्सकलाई विदेश पुगेको ठाउँबारे जानकारी दिने

रोग संक्रमण भएको बांका लागेमा स्वास्थ्य तथा रोग नियन्त्रण कार्यालय कल सेन्टर 1339मा परामर्श गर्ने

चीनको संक्रमण रोगको प्रख्यात ठाउँ घुम्न जादा सावधान हुने

पशु(बरेस्तु पशुपन्थी समेत) | आफ्नो क्षेत्रको बजार तथा मेडिकल | ज्वरो आएको, श्वास प्रश्वासमा(खोकी, सास

몽골어

Корона вирусээ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зөвлөмж

Хавсралт1-1 | Хувь хүний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5үндсэн журам

【Үндсэн журам ба зурвас (санал)】

- (1дэх журам) “Өвдвөл 3-4 өдөр гэртээ байх”
- (2дах журам) “Хүмүүс хоорондоо зай барьж харилцах”
- (3дах журам) “30 секунд орчим гараа угаах”
- (4дэх журам) “Өдөр бүр 2оос доошгүй цэвэр агаар оруулах, байнга ариутгал хийх”
- (5дах журам) “Зайнаас харьцаж байгаа ч сэтгэл нь ойр байх”

< Үндсэн журам (санал) >

1дэх журам “Өвдвөл 3-4 өдөр гэртээ амарах хэрэгтэй.”

(шалтгаан) Корона19 хөнгөн шинж тэмдэг илэрсэн ч эхний үе шатанд халдварлах болзошгүй. Халуура х юмуу амьсгалын замын шинж тэмдэг илэрвэл халдвар авах магадлал байж болзошгүй тул хүмүүстэй аль болох холбогдохоо багасгаснаар корона19 вирус тархах эрсдийг бууруулж чадна.

- 1 Халуурах, ханиах, цэр гарах, булчин өвдөх, хамар битүүрэх ба амьсгалын замын халдвар илэрвэл 3-4 өдөр гэртээ амарах хэрэгтэй.
- 2 Шинж тэмдэг илэрвэл орчны хүмүүстэй аль болох уулзахгүй байх, гэрт хүмүүс байгаа бол маск зүүх хэрэгтэй. Ялангуяа ахмад настан суурь өвчтэй хүнтэй харилцах ба хооллох зэргээс татгалзах хэрэгтэй.
- 3 Амарсаны дараа шинж тэмдэг арилсан бол ажилдаа эргэж орж болох, ба амрах үед 38дээш хэмтэй халууралт үргэлжлэх ба шинж тэмдэг хүндэрвэл төв утас(☎1339, ☎бүс нутгийн код+120)мөн эрү үд мэндийн төврүү залгаж асууна үү.
- 4 Эмнэлэг ба эмийн сан явах мөн хэрэгтэй зүйлээ худалдан авахаар гадгш гарахдаа масkaa заавал зүүх хэрэгтэй.
- 5 Аж ахуйн нэгж, дарга ажичинд шинж тэмдэг илэрвэл ажилдаа явахгүй байх ба гэртээ очиж амара хад нь түслах хэрэгтэй.

2дох журам “Хүмүүс хоорондоо хол зайг барьж харилцана.”

<http://somi.or.kr/va/25020>

생활방역지침 다언어버전 안내

(사)이주민과함께
[생활방역지침 다언어버전 : 12개 언어]

한국어, 네덜어, 러시아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사례2: 장애인 인권 옹호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책 대응 활동
 - 국가 차원 장애인 재난대책 수립방안 제시
 - 장애인 확진자 입원 시 대응 매뉴얼 개발
 - 입원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 기본 수칙 개발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간담회
- 긴급구호물품과 서비스 지원
- 캠페인, 언론 기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성보재활원 거주 장애인 5명이 서울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등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6명을 비롯해 서울의료원 등 5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지원했고, 이 병원 국민정신건강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한 12명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격리 조치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확진판정을 받아 서울로 이송조치된 거주 장애인 5명 중 3명은 고혈압과 당뇨, 뇌전증 등 지체 질환자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대구시 확진자 증가로 인한 병상부족으로 인해 대구 관내 병원에서 입원병상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전장연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입원 장애인 생활지원

이번 서울 이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협력체계가 있어서 가능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인도 방호복 D 레벨을 착용해야 한다. 이 방호복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따라서 장애인 1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생활지원인이 필요하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해 병원을 이송한 이후에도 문제가 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선화 활동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소하는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기간 중 장애인의 생활을 전담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지원인을 모집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다.”며 “지원인력 중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있으려면 많은 체력이 소모하기 때문에 모집자 중 탈락한 사람이 있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남성 활동가들이 포함한 10명이 (방호복 착용 등의) 교육을 받고 지원에 나서며, 1명당 2~3명씩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례3: 성소수자 인권 옹호 단체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안내

대책본부의 역할

- 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성소수자 필요와 차별 대응, 인권침해 상담, 검진 홍보 및 치료, 방역당국과의 소통

직장, 가족, 사회에서의 차별, 아웃팅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케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시~18시 / 매일)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시~20시 / 매일)
- 한국청소년성취개발연맹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시~19시 / 화~토)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02-924-1227 (11시~21시)

대책본부 문의

- 상담 해 코로나19 성소수자 대책본부로 문의하고 싶은 경우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민주노동법률원이 노동관련 상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 인권침해 상담과 대응
- 커뮤니티 대상 홍보
- 언론 대응
- 방역 당국과의 소통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 확대 서울특별시 x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지금 바로

우리 검진받자

나와 커뮤니티를 지켜요!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문의

한국케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9-18시	한국청소년성취개발연맹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시 (월~휴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02-924-1227 11~21시 (일-월 휴무)

사례4: 노동조합



지난 13일 국제간호사의날을 기념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개최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코로나19의 현실과 향후 과제' 좌담회에서 인도네시아의 한 의료인이 영상을 통해 자국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코로나19자료

교육자료

사전자료

문서자료

코로나19 자료

코로나19 보도자료

글 수 24

번호	제목
24	200325_코로나19 환자 수술지침 및 수술실 운영 권고 ▶
23	200320_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제 3판 ▶
22	200320_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21	200315_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 비교 7-3판 ▶
20	200312_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
19	200310_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
18	200310_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병원급_의료기관) 개정배포 ▶
17	200310_대한신장학회(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1-3판) ▶
16	200310_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7판 ▶
15	200304_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안내(대응지침7판 적용) ▶
14	200304_코로나19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제2판 ▶

멈춰라!
노동개악!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소개
 최신글 보기
 인기글 보기



사례5: 노동조합/노동권 옹호 단체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민주노총에 제보/상담하세요

#재난상황_해고금지 #사각지대_노동자_생계보장

민주노총은 여러분의 제보를 받아
위반은 바로잡고,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제보내용은 익명, 비밀이 보장됩니다.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전국어디서나 무료노동상담 1577-2260



👍 페이지 좋아요

<코로나19 생활방역 긴급 설문조사>

▶ 참여 : <https://bit.ly/covid19rest>

정부는 4월 12일, 생활방역지침(안)을 발표하고, '생활방역 체제' 전환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방역지침 제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입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생활방역지침 제1수칙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이 보호 되도록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설문조사 기간 : 4월 14일(화)~ 4월 17일(금) 4일
-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4월 셋째 주 중

* 조사단체 : 직장갑질119(www.gabjil119.com)

* 설문에 끝까지 참여하신 분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편의점 1천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긴급 설문조사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생활방역지침 제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참여 : bit.ly/covid19rest

* 설문에 끝까지 참여하신 분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편의점 1천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사례6: 국제시민사회 연대활동



Public Citizen logo and navigation icons are visible at the top. The article title is 'COVID-19: Principles for Global Access, Innovation and Cooperation', dated April 23, 2020. Social sharing icons for Facebook, Twitter, and Email are present. The text discusses the global impact of COVID-19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PRIL 23, 2020

COVID-19: Principles for Global Access, Innovation and Cooperation

SHARE   

COVID-19 has no nation and no ethnicity. If the pandemic goes unattended in one country, it will accelerate beyond that country's borders, potentially overwhelming the world's ability to respond.

Nationalistic responses to COVID-19 are ineffective. Countries must urgently work together to ramp up the production of all medical countermeasures, from masks and ventilators to tests, treatments and vaccines, and ensure that everyone receives the medical attention they need. We must tend not only to COVID-19 and its symptoms, but to people's ongoing and underlying health needs, which will become more acute as the pandemic runs its course.

There is real danger that access to medical breakthroughs addressing COVID-19 will be restricted by nation, by price, by limited production and fragmented supply lines, and by exclusivity and commercial confidentiality. We must prevent this – and help change medical innovation, health and nationalism – by moving corporations, health agencies and governments to share medical technology, invest in public manufacturing capacity and promote access for all.



Public Citizen logo is at the top. The article title is 'Civil Society Letter to Gilead to Renounce Remdesivir Orphan Drug Claim'. Social sharing icons for Facebook, Twitter, and Email are present. A dropdown menu shows 'Letter from 51 groups to Gilead renounce remdesivir orphan drug claim'. The text describes a letter from 51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Gilead Sciences.

Civil Society Letter to Gilead to Renounce Remdesivir Orphan Drug Claim

SHARE   

Letter from 51 groups to Gilead renounce remdesivir orphan drug claim

On March 25, 51 civil society organizations, led by Public Citizen, wrote Gilead Sciences to demand the corporation reverse course and renounce its claim to orphan drug designation privileges for remdesivir, one of relatively few medicines being explored as a possible treatment for COVID-19 this year.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logo and tagline 'ATTENDING AND MENDING THE KNOWLEDGE ECOSYSTEM' are at the top. A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ABOUT, AREAS OF WORK, CORONAVIRUS, LISTSERVS, VIDEOS, PUBLICATIONS, DATABASES, and D. The article title is 'Open letter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proposal by Costa Rica to create a global pool for rights in the data, knowledge and technologies useful in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treatment of the coronavirus/COVID-19 pandemic'. The text describes a letter to the WHO and its Member States.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ATTENDING AND MENDING THE KNOWLEDGE ECOSYSTEM

Open letter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proposal by Costa Rica to create a global pool for rights in the data, knowledge and technologies useful in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treatment of the coronavirus/COVID-19 pandemic

ABOUT | AREAS OF WORK | CORONAVIRUS | LISTSERVS | VIDEOS | PUBLICATIONS | DATABASES | D

Open letter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proposal by Costa Rica to create a global pool for rights in the data, knowledge and technologies useful in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treatment of the coronavirus/COVID-19 pandemic

Posted on March 27, 2020 by James Love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 지속되는 건강 위험과 사회적/경제적 여파에 맞서기 위해 CSO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정부는...
 -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책무성 인식
 - (시민 동원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 : 정책 결정자, 기술관료, 일선 담당자
 - (평소에) 해당 영역, 혹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역량 파악
 - 시민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알 권리 보장
 - 시민적 인프라 강화: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경험 축적을 위한 지원
- CSO는...
 - 인권 옹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확인
 - 중앙/지방정부에 대한 협력과 비판
 - 다른 CSO들과의 연대

감사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건강연구소

- 홈페이지 <https://health.re.kr>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hikorea>
- 트위터 @phikorea
- Email people@health.re.kr